+

# '통일서통일로'…道교육청, 남북 학생 교류 나선다

— ∻—>

김대중 교육감, 통일부에 공식 제안 '목포역-단동' 등 3단계 로드맵 설명 '아시아 의(義) 청소년 센터' 요청도 鄭장관 "기금 활용 법 개정 시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남·북학생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統一)에서 통일(通一)로' 남북 학생 교류 모델을 통일부에 공식 제안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은 지 난 25일 통일부를 방문해 학생 주도 평화·통일교 육기반을확대,미래세대 중심의 남북 교류환경 조성 사업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제안했다.

통일부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나광국 전남도의원 이함께했다.

도교육청은 남북 학생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단계 '평화 품은 책길 10주년 한마당' ▲2단계 '전남·경북 학생 평화 수호 프로젝트' ▲3단계 '전국 10만 학생 참여 통일 인재양성 교류'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지난 9월 개최한 '평화를 품은 책길 1 0주년 한마당'을 통해 선보였다. 한마당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평화·통일교육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남북교류 추진을 선언하는 자리로 성 황리에 마무리됐다. 2단계는 내년 7월 추진 예정인 '전남·경북 학생 평화 수호 프로젝트'로, 전남·경북 평화·민주 장소 견학과 인문학적 고찰, DMZ 탐방 등을통해 동·서간의 이해와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데 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전국 10만명의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 목포역 도라산역 개성역 평양역 단동을 잇는 남북 학생 교류다.

북측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임진각·평화누리공 원 일대에서 아시아 청소년 평화포럼, 평화 기 원 문화예술축제 등을 운영하는 복안도 갖고 있 다. 더불어 국민 청원 서명과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통일·평화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아시아 의(義) 청소년 평화교육센터' 설립도 요청했다.

정동영 장관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통일부 예산의 90%가 남북교류 기금으로 당장 지원엔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잠자고 있는 남북교류기금 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최우선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살아 가는 학생들에게는 시공간과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평화 감수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 남 학생들이 평화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미래세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북학생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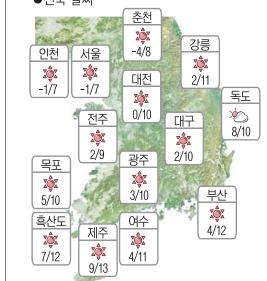
### 오늘의날

해뜸 07:20 해짐 17:21 ) 달뜸 13:02 달짐 —:—

●광주 · 전남 날씨

광주	맑음	3/10	장성	맑음	2/10
목포	맑음	5/10	보성	맑음	1/9
여수	맑음	4/11	함평	맑음	3/1
나주	맑음	1/10	순천	맑음	2/10
완도	맑음	5/12	영광	맑음	3/10
구례	맑음	2/10	진도	맑음	5/1
강진	맑음	3/11	흑산도	맑음	7/12
해남	맑음	3/11	고흥	맑음	3/12
광양	맑음	3/12	담양	맑음	2/10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3.0	0.5-1.0	
	남부	먼바다(북)	1.5-3.5	1.0-2.0	
		먼바다(남)	1.5-3.5	0.5-2.0	
	남해 - 서부	앞바다	1.0-2.0	0.5-1.0	
		먼바다(동)	1.5-3.5	1.0-2.0	
		먼바다(서)	1.5-3.5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3
목포	06:52	00:16	여수	01:54	07:46	녹동	02:36	
	19:38	12:14		14:39	21:23		15:31	22:4

●생활정보지수



●주간 날씨

29일(토)	30일(일)	12월1일(월)		
<b>ൂ</b> (2/15) 맑음	(7/16) 구름많음	<b>ॐ</b> (6/11) 맑음		
2일(화)	3일(수)	4일(목)		
(2/10) 구름조금	종 (1/6) 눈	(-1/6)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대표전화 | 062-234-4576

####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북구, 산자부 공모사업 6년 연속 선정

광주 북구가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에도 총 15억9천여만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6 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돼국·시비 9억6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상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 비 용의 최대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에너 지 복지 향상과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 기업 6개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수요조 사 등을 사전에 진행하며 공모에 대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총괄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6년 연속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확보한 국·시비 예산과 구비 매칭분, 자부담액 등은 내년 2월부터 북구 소재 건축물 239 개소(주택 210개소·일반건물 29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 융합 설비 설치에 투입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 내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 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2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총 1천635개 건축물에 143억여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다. /윤찬웅기자



건축 자재·인테리어 제품 '한자리'

건축 자재, 인테리어 등 집과 건축물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소개하는 호남 최대 건축박람회인 '2025 광주 경향하우징페어'가 2 7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려 시민들이 인테리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 보험 의무화

#### 市, 화재·사고 보상체계 마련

광주시는 27일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 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 수련시
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자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 민원실(광주 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

접수할 수 있다.

<del>🎡</del> 한<del>국불</del>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 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 유효기간만료 전이다.

보험상품은 12월 중 출시 예정이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28일까지 신고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com